

『茲山魚譜』의 해양생태인문학적 가치요소 추출 및 융합콘텐츠 개발 연구

남진숙*, 김상남**, 신상기***, 고혜영****, 이석환****, 김형균****
이영숙*****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 *****서울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SW교육혁신센터
****동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영상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e-mail : tonacoco@dongguk.edu

TA Study on the Extraction of Marine Ecological and Humanistic Values and Development of Converged Content in Jasan-Urbo

Jin-Sook Nam, Shang-Nam Kim*, Shang-Ki Shin***, Hyeyoung Ko**,
Suk-Hwan Lee****, Hyung-Kyun Kim**, Young-Suk Lee**
Dept. of Digital Media Design&Applic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 of Media & Contents, Pai Chai University***
Dept. of Information Security, Tongmy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DharmaCollege, Institute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요 약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해양생물학에서 차지하는 자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그 자료를 저술하는 과정에 담긴 생태인문학적 가치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한 현재적 재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자산어보』를 해양생태인문학 관점에서 현대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나아가 융합콘텐츠 개발에 있어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가치요소를 추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자산어보』는 역자의 말, 정약전이 쓴 머리말, 그리고 목차, 내용, 자산어보 원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해양생물 226종에 대한 명칭, 크기와 형태, 생태, 어획방법, 이용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로 보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생물분류방식에 많이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암은 해양생물을 인류(鱗類), 무인류(無鱗類), 개류(介類), 잡류(雜類)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를 하위범주로 인류에 20류 72종, 무인류 19류 43종, 개류 12류 66종, 잡류 4류 45종 등 총 55류 226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런 분류는 그 이전 조선시대 해양어보와 관련한 서적에는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었다. 따라서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해양생물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해양생물에 대해 면밀히 기록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생물에 대해서는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세세히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삶에서의 현장지식, 문헌연구를 통해, 흑산도 근해의 해양어족의 이름을 밝히고자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헌에 수록되지 않는 대부분 종은 자신이 직접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자산어보를 통하여 해양생물에 관한 지식이 체계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당대 시대를 생각하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바다생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 또한 높으며, 학자로서의 정약전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면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정약전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수생생물을 연구한다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을 의미, 이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문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어족을 정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비록 문헌에는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는 해양생물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가 변화의 조류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고자 했던 영향력 있는 유학자였음

을 감안할 때, 정약전이 해양생물만을 소재로 어보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주목할 의미와 가치는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손암이 실학자로서 실용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유용하게 적용시키고 했던 바람을 기억한다면, 현재 『자산어보』를 박물관에 보관된 지식으로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산어보를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현재의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한 현재적 재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茲山魚譜』을 해양생태인문학 관점에서 현대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나아가 학제간 융합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생태인문학의 개념과 이해

『자산어보』가 학문 융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인문학, 생태인문학, 해양생태인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 인문학이라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둘째, 자산어보를 생물학 문헌으로만 보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산어보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해양학, 인문학(언어, 철학, 문학, 역사 등), 음식학최근 미국학계에서는 음식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두고 ‘음식학(Food Studies)’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만드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과학, 예술, 역사, 사회 그리고 다른 여러 학문 부과를 포함하여 음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는 학문이 바로 음식학이다. 음식에 대한 철학과 역사, 문학적 구성, 사회문화적 기능과 상징, 그리고 식습관과 국가의 영양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음식학 연구는 철학자, 역사학자, 과학자, 문학연구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지역학(도시지역), 민속학, 인간학, 교양학 등 여러 학문의 경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어보에 이러한 요소를 먼저 찾아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연휴에 ‘『자산어보』가 지닌 융합적인 특성을 살려 ‘인문학, 예술학, 공학’이 긴밀히 융·복합되도록 원천 데이터소스의 공정과정으로 나아가고 이를 토대로 융복합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현실화하고 실현화,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산어보의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부가적인 효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다.

정약전은 해민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관심으로 『茲山魚譜』를 저술한 것은 아니고 서남해의 여러 섬들과 나주 영산포를 주 무대로 삼고 어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던 일부 지배층을 대상으로 저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약전이 이런 관점에서 저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산어보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당대 독자가 사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자산어보

는 이미 문화적 유산으로서 당대적 해석과 함께 현재적 관점으로서의 재해석과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문화유산으로서 받은 후손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어보를 현대적 관점에서 읽어내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어보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부여를 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자산어보』의 해양생태학적 가치 추출

3.1. ‘암묵적 지식’ 속에 담긴 소통과 통섭

흑산도에 자신이 처음 보는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정약전은 그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본인이 물고기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고,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한계가 온 것은 당연하다.

“흑산도 해중에는 어족이 극히 많으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적어 박물자(博物者)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내가 섬사람들을 널리 심방하였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좇을 수가 없었다. 섬 안에 장덕순(張德順, 일명 昌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문사객(杜門謝客)하고 고서를 탐독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서적이 많지 않은 탓으로 식견이 넓지 못하였다.” (중략)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 정약전은 “박물자”로서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좇을 수가 없었다.”라고 언급되어 있듯이, 실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장덕순 창대 만큼은 아니더라도 섬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은 자산어보를 쓸 수 있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 및 바다와 바다의 생물에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약전은 생태학적 인식과 관심을 갖고 자신이 유배당했던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자신이 처한 자연, 생활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가 흑산도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분류,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의 해양생태학적인 관점은 어류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충, 해금, 해수, 해초 등 당시 물고기로 분류되지 않았던 생물까지 어보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은 단지 물고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자산어보에 내재된 생태학적 가치를 읽어낼 수 있다. “해양생물에 대한 지적 시도는 먼저 섬사람들에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겪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고자 관찰, 맛에 대한 평가 등의 현장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자산어보에서 지식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상당 부분이 섬사람들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 즉 ‘암묵

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약전에게 누가 '암묵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장덕순에게 들은 이야기든, 섬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분명한 것은 섬마을 사람들의 '암묵적 지식'으로 서술된 것이라는 점이다. 거기에 정약전 삶의 가치관이 더해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글이기 때문에 채록된 내용보다는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약전이 마을 사람들 혹은 장덕순에게 듣고, 서술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자산어보에는 '물 속의 생태를 마치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묘사도 있다. 어류의 수정에 관한 묘사(상어), 꼬리를 휘둘러 물고기를 잡는 모습(환도상어), 미끼로 먹이감을 유인하는 모습(아구) 등 이는 당시 흑산도 주민의 잠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당시 흑산도에는 오늘날 알고 있는 해녀라는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신 남자들이 해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약전은 어느 한 사람과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였을 것이며, 창대와 함께 묵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통섭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손암은 마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이처럼 단순한 생물학 문헌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교류를 기본에 깔고, 귀천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3.2. 구비전승과 문헌의 검증과 현대화 가치 창조

자산어보의 문화적 요소가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바로 앞서 설명한 암묵적 지식을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구비전승과 문헌을 통해 검증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런 구비전승과 문헌들을 통해 해당 해양생물의 현대화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다.

현재 생물다양성 측면과 멸종 종으로 분류, 보호되는 고래는 그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흑산도 근해에서도 고래가 잡혔다. 고래는 매우 다양하고 함축적인 상징이 있어 문학 텍스트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자산어보의 226종의 생물 중에 무인류(無鱗類)편에 고래(101-102쪽)가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는 고래의 모양과 크기, '옥편에 의하면 고래는 물고기의 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남바다에 고래가 출몰하고 일본사람들이 고래 고기를 좋아하며, 일본인은 화살에 약을 발라 고래를 잡는다는 설명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고래가 쓰이는 곳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해양생태인문학의 원형 가치를 연구하는데 있어 물고기의 생태학적 습성과 특징, 그리고 자산어보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종에 대한 생태인문학적 관점에서 각각 특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자산어보에 있는 수많은 종을 모두 스토리텔링

화하는 것은 시간적, 인력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 갖거나 상징성이 강한 어종, 인기있는 어종,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리면 좋은 생물 등 상대적으로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자산어보에 실려 있고 흑산도와 관련한 구비전승이 있다면, 스토리텔링화 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그 활용가치도 높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인데 연관된 내용, 즉 기본 콘텐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연관된 것이 없다면 연관성을 찾아서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전자가 스토리텔링화 하는 데는 현장감도 있고, 다가가기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아래 내용은 흑산도에 구비전승 되는 고래이야기로, 매우 흥미롭다.

‘고래가 살린 사리어부’라는 제목으로 구비전승물로 채록되어 있는 내용은, 제보자가 족보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실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족보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고래가 사람을 살렸다는 것’과 그 후 ‘그 집안은 고래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래에 대한 보은의 의미이다. 또한 이를 확장하면, 오늘날 자연환경의 문제와 연결하여 좋은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즉 고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고래와 인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호관계성을 맺는 중요한 생물이라는 점을 인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래를 의인화하는데 용이 하다는 말이다.

또한 구비전승의 현재적 재해석이나 ‘현재’에 맞게 다시 전승의 방법이나 내용을 각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비전승물을 단순히 이야기로, 혹은 글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과 과학기술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VR로 제작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직접 고래를 타고, 혹은 고래가 밀어주는 배를 타고 주인공인 한비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산어보의 실린 고래의 특징을 함께 살려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과학기술과 기존의 콘텐츠,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결합된 이런 해양생태콘텐츠로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될 것이다.

체계적인 『자산어보』 어종 DB 활용방안을 설계하여 원형 연구의 활용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자산어보』를 통한 인문학의 재발견과 가치를 연구하여 융합된 문화콘텐츠 산업에 즉각적 적용이 가능한 인문학 기반의 실용적 연구를 제안”은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작업이 만나 새로운 해양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산어보에는 음식과 약용과 관련된 증언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생활상과 관련된 식문화와 식생활과 의학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4. 『자산어보』를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제언

지금까지 자산어보에 내재된 해양학적 특징과 인문학, 음식학, 민속학, 인간학, 교양학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분야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해양문화지도를 그리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에 자산어보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흑산도에 ‘자산어보 박물관’을 만들어 그 안에 콘텐츠로 VR 기술구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흑산도에는 여객선 터미널 뒤쪽에 박물관이 한 곳 있다. 이곳에서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한 부분을 엿볼 수 있지만, 규모도 작고, 일반적인 박물관과 다를 바 없이 특징적이거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 흑산도, 정약전, 자산어보의 특징을 연관하여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자산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면 흑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섬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역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과 생태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산어보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용 역시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양체험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좀 더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음식과 관련하여 자산어보에 나온 물고기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여 섬 주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수입이 될 것이다.

넷째 흑산도의 구비전승과 자산어보의 문헌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하여 그와 관련한 도서 출판 및 VR체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흑산도 해양문화콘텐츠 벨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 연구는 ‘『자산어보』 기반의 체험형 VR해양문화지도 아젠다 발굴’을 위한 기본 단계로서 『자산어보』의 현대적 가치의 중요성 및 해양생태인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피고, 나아가 해양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서술한 내용은 큰 밑그림이며 그 그림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몇 장 그린 셈이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섬의 시대’이다. 이제 곧 다가올 “제1회 섬의 날 기념식(19. 8. 8) 제정을 계기로 관광,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흑산도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섬에 해당한다. 이런 섬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섬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섬과 바다를 보존하고 더불어 해양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산도는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는 문화적 자산과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해양문화콘텐츠의 기반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해 거북이, 고래를 비롯한 바다생물이 죽어간다는 기사 등은 모두 현실로 다가온 바다의 오염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더 이상 바다가 생물들의 안전한 서식처로, 인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협 받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어느 때보다 해양과 해양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 Acknowledgments. 결론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6069835)

참고문헌

- [1]김상남 외 5인, 「자산어보 어종 BD 분류 방안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1쪽.
- [2]정약전 저, 정문기 역, 『자산어보』, 지식산업사, 1977
- 정명현,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홍순탁, 「자산어보와 흑산도 방언」, 『호남문화연구』 1, 1963
- [4]김대식, 「자산어보 考」, 『수선논집』 6, 1981.
- [5]정두희, 「천주교 신앙과 유배의 삶, 다산의 형 정약전」, 『역사비평』, 11권, 1990, 310-311쪽,
- [7]이준곤, 「흑산도전승설화로 본 면암 최익현과 손암 정약전의 유배생활」, 『도서문화』, 11권, 2003.
- [8]최성환,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 역사』, 36, 2015.
- [9]정약전 저, 정문기 역, 『자산어보』, 지식산업사, 1977
- [10]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 2009.
- [11]최원오, 「구비전승의 현재와 미래」, 『한국문화인류학』, 제41집 2호, 2008, 197-198쪽.
- [12]주영하, 『음식인문학』, Humanist, 2011, 31-32쪽
- [13]허태용, 「丁若銓의 茲山魚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4집, 2005, 240쪽.
- [14]남진숙, 「한국 해양생태시에 나타난 고래의 표상과 그 상징성」, 『문학과환경』, 제11권 2호, 2012년